

#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미숙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i-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18명의 학생이며,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업가치관 및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고,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 영향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을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 중 직업안정 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낮고, 애국 및 실내활동 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이 높은 경우에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최종적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은 반면에 진로태도성숙도는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of work value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determini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tudy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influence of work value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8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Geonggi-do.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4th to August 27th, 2019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s a result, female student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work value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an did the male students, and the students who had better grades showed highe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the resul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study showed correlation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reater independence, readiness, certainty, and decisiveness were higher and wer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oreover, the higher the students' patriotism and indoor activities, the higher was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conclusi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r according to greater work values, while the influenc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Kim(Shinhan Univ.)

email: clarakms@hanmail.net

Received October 1,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October 31,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특히 생명존중과 돌봄(caring)가치를 실현하고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와 인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생명과 건강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내적인 힘과 외적인 통제력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추어 취업준비행동을 해야 한다[1].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의 과정 없이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2]. 그리하여 대학생활 동안 간호직에 대한 직업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진로태도성숙 과정과 연계되는 취업준비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매년 많은 수의 신규졸업 간호사가 배출되어 취업 경쟁이 높아져서 간호대학생들도 취업을 위하여 학업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펙을 갖추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3].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이 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대형병원의 간호사 수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대학생도 취업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전공에 비하여 높은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이 담보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체계적인 취업준비보다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에만 의존해온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간호대학생들도 본인의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취업준비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대학생 시기에는 사회적 독립, 인생관 확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선택과 같은 어려운 성인기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을 한다. 취업준비행동은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로의 개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취업을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이며, 직업정보의 수집과정과 획득경로, 취업준비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에는 성공적인 구직을 위한 취업관련정보 수집 외에도 재학 중 철저한 학점관리 및 외국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 갖추기 등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된다. 취업준비행동은 정보의 소스,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강도를 구성요인을 갖고 있다[5]. 취업

준비행동은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와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명확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통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6].

취업준비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고찰해 보면, 직업가치관은 직업선택과 결정에 있어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며[7], 특정한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이기보다는 보편적인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이고, 개인의 직업선택이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직업교육에 있어 기본적인 고려요인이다[8]. 개인의 직업가치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고려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9], 직업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특정 직업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자신의 개발, 발전 가능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10]. 그리고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가치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직업관의 개발,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 기능, 직업과 여가활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자신의 감정 능력과 앞으로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사고하며, 이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11]. 그리하여 진로태도성숙은 직업가치 함양, 진로와 직종 직업과 여가활동에 관한 이해, 진로발달에 필요한 기초학력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소양 그리고 자신의 잠재 능력과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 및 사회봉사 등에 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12]. 결국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13].

한편,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직업가치관 중 실질적 중요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14], 특히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15]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16],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17]. 그 외에도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며[4],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관이 관련성이 있고[18],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

과가 있다[20].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를 모두 변인으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는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를 파악하고, 그 요인들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적극성과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는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직업가치관, 직업인식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에 동의한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전공선택 동기를 조사하였다.

#### 2.3.2 직업가치관(Career Value)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앙고용정보원에서 2005년에 개

발한[21] 청장년층을 위한 직업가치관검사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의 영역은 내적가치와 외적가치를 포함하여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활동 등 전체 13개 하위영역의 7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51 이었다.

#### 2.3.3 진로태도성숙도(Career Attitude Maturity)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22]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설문지를 활용하였는데, 하위영역은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Cronbach's alpha는 .835이었다.

#### 2.3.4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고완숙[23]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서 하위영역은 공식적 직업탐색, 비공식적 직업탐색, 취업준비강도, 취업준비노력,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 직업탐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40개의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38 이었다.

## 2.4 분석방법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업가치관 및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고,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 영향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을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에서 부정형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및 취업준비행동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중요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였고, 취업준비행동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및 취업준비행동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별 특성으로 성별은 남학생 24.8%, 여학생 75.2%로 여학생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19-23세가 67.4%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학년은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응답자 수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종교는 종교없음이 56.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전공 선택 동기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54.6%), 취업이 잘되어서(25.7%),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11.0%)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았다. 반면 취업준비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는 높고, 취업준비행동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의 경우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직업가치관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사후 검정한 결과,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부모님 또는 주변의 권유와 취직이 잘되는 학과에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았다.

#### 3.2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 상관분석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직업가치관이

Table 1. Work value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Work values	Career attitude maturit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Gender</b>				
Male	54(24.8)	3.46±0.40	3.25±0.30	3.10±0.45
Female	164(75.2)	3.57±0.36	3.43±0.33	3.04±0.58
t		-2.016 <sup>*</sup>	-3.491 <sup>**</sup>	0.739
<b>Age</b>				
19-23	147(67.4)	3.55±0.36	3.39±0.34	3.06±0.58
24-28	60(27.5)	3.54±0.43	3.35±0.33	3.11±0.44
29-33	4(1.8)	3.61±0.22	3.64±0.30	2.54±0.67
34	7(3.2)	3.56±0.18	3.47±0.15	2.84±0.61
F		0.043	1.114	1.753
<b>Grade</b>				
Freshman	54(24.8)	3.58±0.36	3.44±0.30	3.09±0.63
Sophomore	54(24.8)	3.52±0.43	3.30±0.35	3.03±0.57
Junior	64(29.4)	3.60±0.33	3.44±0.33	2.97±0.50
Senior	46(21.1)	3.47±0.36	3.35±0.33	3.16±0.47
F		1.310	2.392	1.126
<b>Religion</b>				
Buddhist	14(6.4)	3.44±0.29	3.39±0.34	2.72±0.45
Christian	45(20.6)	3.60±0.37	3.45±0.34	3.15±0.57
Catholic	15(6.9)	3.78±0.36	3.40±0.20	3.01±0.63
Non etc.	124(56.9)	3.54±0.37	3.38±0.35	3.08±0.52
F	20(9.2)	3.38±0.37	3.23±0.28	2.94±0.59
		3.056 <sup>*</sup>	1.582	2.015
<b>Reason of choosing the major</b>				
Wanted to be a nurse	119(54.6)	3.56±0.35	3.47±0.34	3.08±0.56
Suggested by parents and others	24(11.0)	3.61±0.41	3.31±0.29	3.17±0.51
Easy to get a job	56(25.7)	3.49±0.42	3.26±0.31	3.04±0.52
Based on grades	7(3.2)	3.49±0.28	3.36±0.23	2.91±0.19
etc.	12(5.5)	3.54±0.28	3.30±0.26	2.68±0.68
F		0.686	4.735 <sup>**</sup>	1.926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거나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았다. 직업가치관 하위영역 중 성취, 봉사, 변화지향,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인정, 실내활동 영역과 취업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왔다.

### 3.3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 상관분석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를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진로태도성숙도는 취업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거나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았다.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독립성, 준비성, 확산성, 결정성과

취업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인 반면에 물질 추구 목적성과 취업준비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왔다.

### 3.4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따른 취업준비 행동 차이

취업준비행동 총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분석결과, 직업가치관의 하위영역인 직업안정과 애국, 실내활동 영역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0.225$ ). 직업안정성 추구 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낮았으며, 애국 및 실내활동 추구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결과

Table 2. Corelation between work valu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ehavior 1	Behavior 2	Behavior 3	Behavior 4	Behavior 5	Behavior 6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ork Values							0.375***
Achievement	0.244***	0.363***	-0.009	0.269***	0.304***	0.173*	
Service	0.273***	0.303***	-0.037	0.140*	0.188**	0.148*	
Individual activities	0.044	0.042	0.001	0.040	0.052	0.106	
Job stability	0.092	0.167*	-0.061	0.137*	0.045	0.040	
Change orientation	0.283***	0.361***	0.052	0.156*	0.314***	0.203**	
Relaxation of the body and mind	0.097	0.160*	-0.071	0.195**	0.072	0.011	
Using influence	0.295***	0.317***	0.048	0.228**	0.280***	0.232**	
Pursuit of knowledge	0.284***	0.388***	0.005	0.238***	0.310***	0.212**	
Patriotism	0.321***	0.381***	0.124	0.183**	0.295***	0.265***	
Autonomy	0.198**	0.220**	0.027	0.128	0.155*	0.163*	
Monetary reward	0.182**	0.246***	0.007	0.254***	0.166*	0.095	
Acknowledge	0.216**	0.327***	0.050	0.281***	0.207**	0.184**	
Indoor activities	0.228**	0.180**	0.049	0.258***	0.158*	0.143*	

\*: p<.05, \*\*: p<.01, \*\*\*: p<.001 double-tail p -value

Behavior 1-6: formal job search, informal job search, employment preparation intensity, employment preparation effort, pre-job search, active job search

Table 3. Corelation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ehavior 1	Behavior 2	Behavior 3	Behavior 4	Behavior 5	Behavior 6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areer Attitude Maturity							0.219**
Decision	0.082	0.186**	0.146*	0.177**	0.157*	0.129	
Purpose	-0.158*	-0.175**	-0.192**	-0.245***	-0.214**	-0.249***	
Certainty	0.131	0.184**	0.025	0.089	0.173*	0.137*	
Readiness	0.256***	0.317***	-0.095	0.291***	0.237***	0.098	
Independence	0.300***	0.312***	-0.039	0.305***	0.249***	0.170*	

\*: p<.05, \*\*: p<.01, \*\*\*: p<.001 double-tail p -value

Behavior 1-6: formal job search, informal job search, employment preparation intensity, employment preparation effort, pre-job search, active job search

에서는 직업안정성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 분석결과에서는 목적성, 확산성, 준비성, 독립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0.218$ ). 확산성, 준비성, 독립성 관련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고, 물질 추구 목적성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낮았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work valu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Variabl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eta^a$	T	$\beta^b$	T
<b>Work Values</b>				
Achievement	0.177	1.717	0.197	1.864
Service	-0.045	-0.496	-0.017	-0.178
Individual activities	-0.028	-0.383	-0.053	-0.707
Job stability	-0.214	-2.322*	-0.160	-1.641
Change orientation	0.151	1.696	0.167	1.840
Relaxation of body and mind	-0.076	-0.915	-0.070	-0.834
Using influence	0.032	0.288	0.029	0.257
Pursuit of knowledge	0.047	0.469	0.049	0.464
Patriotism	0.282	2.992**	0.265	2.726**
Autonomy	-0.079	-0.899	-0.054	-0.595
Monetary reward	0.074	0.800	0.076	0.793
Acknowledge	0.047	0.476	-0.020	-0.193
Indoor activities	0.179	2.329*	0.179	2.314*
Adjusted $R^2$	0.203		0.225	
F-value	5.262		3.247	
p-value	0.000		0.000	
<b>Career Attitude Maturity</b>				
Decision	0.102	1.277	0.061	0.749
Purpose	-0.192	-2.841**	-0.174	-2.477*
Certainty	0.175	2.253*	0.222	2.761**
Readiness	0.109	1.581	0.160	2.242*
Independence	0.250	3.539**	0.227	3.173**
Adjusted $R^2$	0.183		0.218	
F-value	10.709		4.018	
p-value	0.000		0.000	

\*:  $p < .05$ , \*\*:  $p < .01$

a) sociodemographic factors unadjuste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b) sociodemographic factors adjuste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 3.5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취업준비행동 총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종교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0.180$ ). 종교가 불교인 학생보다 개신교와 무교인 경우에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고,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eta$	T	p
<b>Gender(Criterion of Male):</b>			
Female	-0.101	-1.488	0.138
<b>Age(Criterion of 19~23)</b>			
24~28	-0.006	-0.084	0.933
29~33	-0.078	-1.156	0.249
34 or more	-0.061	-0.924	0.357
<b>Grades(Criterion of Freshmen)</b>			
Sophomore	0.010	0.123	0.902
Junior	-0.071	-0.815	0.416
Senior	0.114	1.354	0.177
<b>Religion(Criterion of Buddhist)</b>			
Protestant	0.251	2.192	0.030
Christian	0.063	0.713	0.477
Non etc.	0.265	2.041	0.043
0.168	1.779	0.077	
<b>Reason of choosing the major(Criterion of "Wanted to be a nurse")</b>			
Suggestion by parents and others	0.052	0.772	0.441
Easy to get a job	0.028	0.406	0.685
based on grades	-0.052	-0.825	0.410
etc	-0.112	-1.679	0.095
Work Values	0.361	4.966	0.000
Career Attitude Maturity	0.103	1.337	0.183
Adjusted $R^2$	0.180		
F-value	3.807		
p-value	0.000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직업인식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고 한 연구[4]와 일치하는 반면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다는 연구[24]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13]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이 결과는 취업준비행동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연구[14]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과 학년의 경우,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고, 고학년이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일반대학생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진로태도의 성숙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25, 26]와 동일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 2학년과 3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3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취업준비행동 하위영역 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는 연구결과[15]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는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자아존중감, 사회성 정도와 관련성에서 종교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10]를 일부 뒷받침한다.

전공선택동기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부모님 또는 주변의 권유 또는 취직이 잘되는 학과여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진로태도성숙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적성 또는 흥미로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전망을 이유로 선택한 학생들보다 전공 및 대학이 높게 나온다는 연구[4, 27]와 비교해볼 때, 결국 전공선택동기가 진로발달에 필요한 기초학력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소양을 이해하게 되는 진로태도성숙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28]에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령으로는 24살 이상인 경우,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 경우, 그리고 전공지원동기 중에서는 취업에 유리해서, 부모 또는 주위의 권유로,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지원한 경우가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

둘째,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 간에는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거나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았다. 특히 직업가치관 하위영역 중 성취, 봉사, 변화지향,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인정, 실내활동 영역과 같은 내재적 가치[29]가 취업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내재적 가치는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재적 가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한 연구결과[30, 31]를 지지한다. 직업가치관의 하위영역 중 성취, 봉사, 직업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높게 가질수록 간호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를 보면, 직업가치관의 하위영역인 직업안정과 애국, 실내활동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직업안정성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낮았으며, 애국 및 실내활동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직업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7, 32]와 일치한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을 보면, 특히 하위영역 중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고, 물질 추구 목적성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낮았는데, 이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 중 준비성과 결정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33]를 일부 지지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를 고려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향후 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정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과 진로태

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둘째,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도와 취업준비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업가치관의 하위영역 중 직업안정 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낮고, 애국 및 실내활동 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한편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이 높은 경우에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셋째, 취업준비행동 총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는 종교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불교인 학생보다 개신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고,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진로태도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준비행동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성숙도는 각각 취업준비행동과 관련이 있고, 특히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직업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간호대학들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간호윤리를 통해서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에서는 물론이고, 비정규 교과에서도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성숙도가 여학생에 비해 낮게 나온 남학생을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의 정도가 각 학년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학년별 맞춤형 취업준비행동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References

- [1] J. K. Le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23, 2004.
- [2] E. J. Kim,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2-3, 2011.
- [3] S. L. Kim, "The Effects of Career seek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Career Barri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Ph. D.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23, 2018.
- [4] S. Y. Lee, "The Effects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pp.15-16, 2016.
- [5]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18, no.2 ,pp. 312-322, 2012.  
DOI : <http://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6]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 M. K. Lee , S. J. Yoon,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122-131, 2015.  
DOI : <http://doi.org/10.5807/kjohn.2015.24.2.122>
- [7] Y. H. T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es and Professional Value on the Behavior of Future Occupation", Ph. D. dissertation, Sehan University, Youngam, South Korea, pp. 22, 2018.
- [8] Y. J. Han, "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 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Ph. D.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pp.21, 24, 2014.
- [9] J. Y. Jung,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80, 2013.
- [10] M. S. Yeon, S. Y. Yim, "A Study of Convergence Social Voluntary Service Activity and Sense of Profession Values, Self-Esteem, Socia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1, pp. 562-570, 2018.  
DOI : <http://doi.org/10.5392/JKCA.2018.18.11.562>
- [11]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 58, 1997.
- [12] J. H. Kwak, "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 Educational Program on the Career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h. D dissertation, Dankuk University, Cheonann, South Korea, pp. 2, 2011
- [13] S.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 143, 2005.
- [14] Y. S. Jo, "The Analysis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Z",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4, pp. 1690-1698, 2013.  
DOI : <http://doi.org/10.5762/KAIS.2013.14.4.1690>
- [15] H. J. Choi, J. S. Kim,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vol. 8 no.3, pp. 21-33, 2018  
DOI : <http://doi.org/10.35273/jec.2018.8.3.002>
- [16] T. J. Jeo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Vol. 22 No. 4, 344-352, 2016  
DOI : <http://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17]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Vol. 25 No. 5, 559-566, 2013.  
DOI : <http://doi.org/10.7475/kjan.2013.25.5.559>
- [18] H. S. Park, "A Study of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Job Valu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wangju City, South Korea, 2018.
- [19] C. S. Jung, S. Y. Lee, "Factors Affe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1, pp. 873-887, 2018.  
DOI: <http://doi.org/10.21742/AJMAHS.2018.11.88>
- [20] K. Y. Lee, K. S. Jung,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ume 5 Issue 3. Pages.91-99, 2017.  
DOI : <http://doi.org/10.15268/ksim.2017.5.3.091>
- [2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Development of Work Values for Youth: Second Year Report", 2005. <http://www.work.go.kr>
- [22]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 68-70, 1997
- [23] W. S. Gho, "A Study on the Effec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at perceived on the Employment Barri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22, 2014.
- [24] J. H. Jung,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aspiration level, decision marking style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2002.
- [25] K. W. Jee, Y. Han,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4, no.6., pp.33-41, 2016.  
DOI : <http://doi.org/10.14400/JDC.2016.14.6.33>
- [26] M. J. Chae, H. J. Jung,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role conflicts on Male Nursing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9, pp.395-404, 2018  
DOI : <http://doi.org/10.21742/AJMAHS.2018.09.25>
- [27]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10 pp., 261-270, 2016  
DOI : <http://doi.org/10.5762/KAIS.2016.17.10.261>
- [28] S. Y. Yi, P.S.Sung, Y. G.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ckground variable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velopment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1,no.4,pp. 49-68, 2017.  
DOI: <http://doi.org/10.18014/hsmr.2017.11.4.49>
- [29] S. Y. Han, "Investigating Difference of Gender and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Support, Satisfaction with the Major Programs, Intrinsic Work Value and Extrinsic Work Value affecting First Job Satisfaction for Youth Graduates", Master's thesis, D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6, 2014
- [30]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Major and their Work Valu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61-270, 2016  
DOI : <http://doi.org/10.5762/KAIS.2016.17.10.261>
- [31] S. G. Lee, S. W. Oh,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Work Valu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ajor Learning, Work Satisfaction", *8th Employment Pannel Seminar*, 453-470. available, From:<https://survey.keis.or.kr> [cited 2017. 5. 28] (accessed Sep. 30. 2019).
- [32] W. D. Kang,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s,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pp.24, 2009.
- [33] Y. S. Song, H. J. Song, "A Study on Influence of a

Local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no.3,pp. 21-42, 2015  
UCI : G704-001586.2015.15.3.025

---

김 미 숙(Mi-Sook Kim)

[정회원]



- 1984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사)
- 1993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졸업 (보건학석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졸업 (보건학 박사)
- 1995년 3월 ~ 2014년 2월 : 신홍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 보건관리, 의료정보관리